

7년만에 광주서 개인전 여는 서양화가 황영성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서정적으로 풀다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15일~11월15일



‘가족이야기’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백석 시 ‘여우난굴’ 중.

힘든 시절 그래도 먼 길 찾아온 우리를 반기는 건 가족이다. 가족의 따뜻한 정이 물씬 느껴지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내외 화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황영성씨가 7년 만에 광주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15일~11월15일 ‘황영성’전.

이번 전시에서 황 화백은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더욱 완숙해진 정겨운 가족의 얼굴을 펼쳐보인다.

독일 콘스트랄레 드레스덴 미술관 등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유명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그가 도심 생활에서 운영하는 아담한 공간을 선택한 것은 ‘근원’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그는 “한국 미술의 근원은 불교에서 온 것이다. 나의 작품 제작 방법은 서구의 영향을 받았지만 내용은 불교, 이 시대에는 종교와 문화가 서로 교감하는 시대에기에 작품과 종교가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선보이는 ‘가족 이야기’ 연작은 고향의 저녁 밤상이 그리워지는 울림을 준다. 세련된 면 분할과 안정감을 주는 색상 대비가 돋보이는 이들 작품은 소의 다양한 얼굴을 담고 있다. 또 흑백의 대조를 통해 가족의 다양한 표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소의 공존을 모색했고, 소가 가족의 일부로 편입돼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개막식 오픈식이 열리는 14일 저녁에는 무각사 사찰요리연구원 원장 대안산님이 직접 준비한 소박한 사찰 음식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씨는 “그가 풀어나간 세계는 우화적이며, 은유적인 상상의 공간이다”면서 “다양한 이미지의 단순한 병치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 상호 간의 내밀한 친화력과 교감을 통해 자연의 근원적 질서가 숨 쉬게 했다”고 평했다.

황 화백은 1980년대 말 마야, 잉카 등의 문화를 접한 뒤 ‘가족’에 대한 종전 작업을 ‘세계로 열린 가족 이야기’로 확대시켰다. 그 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활발한 작품발표를 통해 국제 화단의 주목과 평가를 이끌었다.

사람, 꽃, 동물 등의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가족 이야기’는 점차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따뜻하고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대 미술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제25회 몬테카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1991년)과 금호미술상(1993년)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0년 서울 롯데화랑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등지

에서 수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지난 2004년 대구시가 선정하는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070.

/오광수기자 kroh@kwangju.co.kr



문학평론가 김현 고향에 유품 4000여점 기증

목포문학회, 내년 김현 전시관 개관 앞두고 전시



한국 문단에 여전히 강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년·사진)의 20주기를 맞아 고향인 목포에 그의 손때 묻은 유품 4000여점이 기증된다.

30년이 채 못되는 문학 인생 동안 치열한 비평 활동으로 한국문학 비평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킨 김현은 사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평론가’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문학사의 ‘신화’처럼 자리 잡은 인물이다.

목포문학회관은 오는 15일 ‘2010

목포 문학축전’ 개막행사에 맞춰, 김현 선생의 유족과 평론가 등 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품 기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유품 기증은 내년에 목포 문학관내에 김현 전시관 개설에 따른 것으로 선생이 사용했던 컴퓨터, 책상, 안경 등 생활유품과 친필원고, 직접그린 유화 등 200여점이 있으며 소장 도서 3766점, 근현대 문학사를 알 수 있는 초판본 도서 다수가 포함됐다. 유품은 선생의 유족과 김현 기념사업회(회장 김치수), 지인과 제자들이 수집

한 것들이다. 목포 문학관에는 박화성, 김우진, 차범석 선생의 기념전시관이 설치돼 있다.

한편, 목포시는 유품 기증식과 함께 목포문학관 개관 3주년을 맞아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문학관과 삼학도 일대에서 문학 콘테스트, 시 낭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문학 잔치 한마당을 연다. 문의 062-273-06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살풀이’ 춤꾼 이애숙의 몸짓으로 되살아난다

‘그의 춤, 흐름과 멈춤’
내일 문예회관 소극장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을 보여주는 살풀이가 춤꾼 이애숙의 몸짓으로 되살아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무용가 이애숙(이화무용단장)씨가 제자들과 함께 꾸미는 ‘이애숙 그의 춤, 흐름과 멈춤’이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씨는 이번 무대에서 멋과 흥이 어우러진 흥겨운 ‘설소고’, 땅자의 넋을 위로하는 지진춤을 완숙한 몸짓으로 선보인다.

또 그녀가 이끄는 이화무용단원들은 이매방류 입춤과 고고한 선비들의

삶을 묘사한 ‘사풍정감’, 승무를 모태로 한 창작춤 ‘보림승무’를 무대에 올린다.

이씨는 한국전통음악 전국경연대회 대상, 제20회 대구국제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이화전통무용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강현구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장진규씨가 시낭송을 이용호·박지용씨가 아쟁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음악을 선사한다.

또 흥겨운 사물놀이도 펼쳐지며 이창호(퍼포먼스)씨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223-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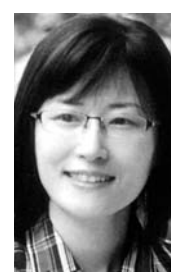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오일 첫 시집 ‘화려한 반란’ 출간

2009년 제8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2010년 한국언더센상을 수상한 안오일(43·사진) 시인이 첫 시집 ‘화려한 반란’(삶이보이는창과 댐)을 냈다.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며 생명과 삶에 대해 담담히 성찰한 시 60여 편이 실렸다.

시집은 관계론적 사유로 충만하다. 그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조화롭고 투쟁하면서 생성



한다. 그것들은 ‘공존의 방식’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고 ‘지독한 힘’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있다.

고재중 시인은 발문을 통해 “그의 작품들은 답답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갖가지 존재나 사람살이에서 세계에 가장 깊은 곳, 곧 진실을 포착해낸다”고 평했다.

안씨는 목포 출생으로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정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Kim Jung A Violin Recital

14일 문예회관 소극장

김정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드뷔시의 ‘바

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시마노프스키의 ‘신화’,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들려준다.

광주에고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독일 아렌과 뷔르츠부르크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유

학시절 독주와 실내악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현재 순천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예술고에 출강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김연씨가 맡았다. 공연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퀘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1관 방가?방가! (12세)	1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최고급관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2관 마루 밀아리테이/퀴즈왕	2관 해결사 (15세)	2관 적인걸-축천우후의 비밀 (12세)	2관 적인걸-축천우후의 비밀 (12세)
3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3관 방가?방가! (12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8세)	3관 방가?방가! (12세)/레지던트티블4 (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4관 슈퍼배드 (전제)/퀴즈왕 (18세)	4관 해결사 (15세)/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4관 해결사 (15세)/아저씨 (19세)
5관 해결사 (15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5관 레지던트티블4 (18세)	5관 슈퍼배드 (전제)/무적자 (15세)
6관 슈퍼배드 (전제)/아저씨 (18세)/레지던트티블4 (18세)	6관 무적자 (15세)	6관 방가?방가! (12세)	6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8세)
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7관 마루 밀아리테이 (전제)/무적자 (15세)	7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8관 슈퍼배드 (전제)/적인걸-축천우후의 비밀 (12세)	8관 슈퍼배드 (전제)/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7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9관 무적자 (15세)	9관 아저씨 (18세)/해결사 (15세)	9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10관 적인걸-축천우후의 비밀 (12세)	10관 적인걸-축천우후의 비밀 (12세)		

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1588-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1544-0600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색깔있는 영화상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